표지면지

Ⅰ. 이슈분석

– 신선농식품 수출이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

신선농식품 수출이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 작성자 : 서진교

2000년대 중반 이후 농림축산물 수출은 연평균 16%씩 빠르게 성장해 왔다. 이와 같은 수출증대가 주로 수입농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농식품 위주이기 때문에 국내 농업생산이나 농가소득 증대와 관계가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국내 농업생산과 직접 연계되는 신선농식품 수출도 그 동안 꾸준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수출된 물량만큼 국내공급을 줄임으로써 국내가격을 지지하는 효과를 통해 농가소득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분명하다.

이에 여기에서는 주요 수출 신선농식품을 대상으로 수출되던 물량이 국내시장에 공급될 경우 국내가격이 얼마나 하락할 것인지, 그리고 그로 인해 해당 농산물의 농업소득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균형변환모형을 이용해 추산해 보았다. 분석 결과, 생산 대비 수출비중이 큰 수출특화품목인 백합, 파프리카, 유자, 팽이버섯 등은 수출이 해당 품목의 농업소득 유지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축산물을 제외한 신선농식품 수출로 인해 농업소득이 지지되는 효과는 연간 2,880~4,250억원으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곡물 및 축산소득을 제외한 총농업소득의 4.2~6.5%(총농업소득의 2.4~4.0%)에 해당한다.

향후 농산물 시장개방 확대에 따른 농업소득의 상대적 정체로 신선농식품 수출의 농업소득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보다 적극적인 신선농식품 수출확대정책이 요청된다. 특히 국내 농업생산 및 농업소득과 밀접히 연계된 신선농식품의 수출증대를 위해서 생산단계부터 해외 최종소비의 수출마케팅까지 전문화된 일관유통체계 확립이 긴요하다. 아울러 기존 단순 식용품목 위주에서 IT와 BT가 접목된 융·복합 농식품 개발 및 수출 확대를 통하여 비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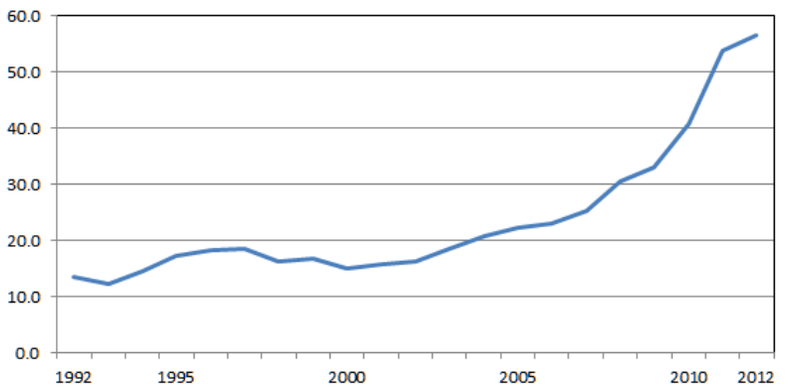
1. 문제의 제기

2000년대 중반 이후 농림축산물 수출이 급격히 증가해 왔음.[1)]

- 농축산물 수출은 1990년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연간 10~20억 달러 사이에 머물러 있다가 2004년 처음으로 20억 달러를 돌파한 이후(20.9억 달러 수출) 급격히 증가하여 2012년 56.4억 달러를 기록함.
  - 이에 따라 농산물 수출증가율은 1995~2005년 연평균 2.5%에서 2005~12년 연평균 14.3%로 약 5.7배 증가

▌농림축산물 수출 추이: 1992~2012▐

(단위: 억 달러)



주: 여기서 농림축산물 수출은 수산물을 제외한 것임.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그러나 이와 같은 농축산물 수출증대는 주로 수입 농축산물을 원료로 하는 가공농식품 수출증대에 따른 것으로 국내 농업생산이나 농가소득 증대와 무관하다는 것이 지금까지의 비판이었음.

1) 이하에서 언급하는 농림축산물에는 수산물이 제외되어 있음. 이는 농업소득에 어업소득이 제외되어 있어 여기서는 수산물을 제외한 농축산물의 수출만을 고려함.

- 실제 2005~2012년 사이 가공농식품 수출이 연평균 16.0%씩 증가해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증대를 견인해 왔음.
  - 마가공농식품 수출은 2005년 16.1억 달러에서 2012년 45.6억 달러로 연평균 16.0%씩 성장하여 같은 기간 2.8배 증가
  - 반면 국내 농업생산과 연계되는 신선농식품 수출은 2005년 6.1억 달러에서 2012년 10.8억 달러로 연평균 8.5%씩 증가하여 같은 기간 1.8배 증가
- 이에 따라 전체 농림축산물 수출에서 신선농식품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5년 27.5%에서 2012년 19.1%로 떨어졌음.
  - 가공농식품 수출액 대비 신선농식품 수출액 비중도 2005년 0.38에서 2012년 0.24로 하락

▌농림축산물 수출추이: 200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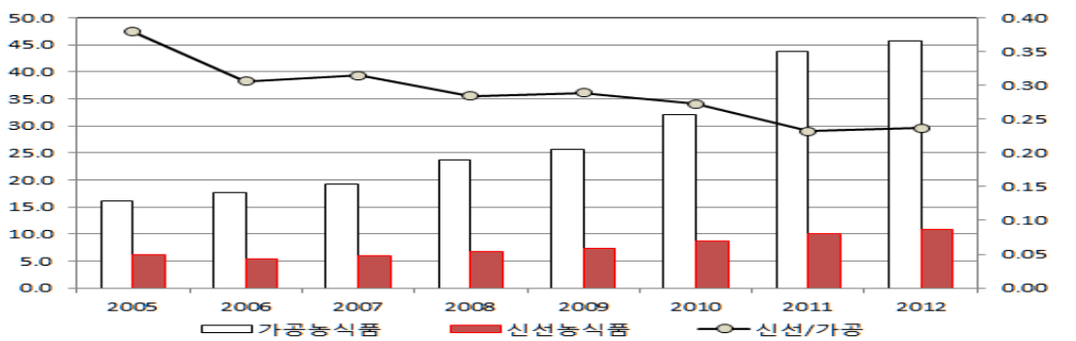
(단위: 억 달러, %)

	2005	2010	2011	2012	2005~12 연평균 증감률 (%)
농림축산물 (A)	22.2	40.8	53.8	56.4	14.3
가공농식품 (B)	16.1	32.1	43.6	45.6	16.0
신선농식품 (C)	6.1	8.7	10.2	10.8	8.5
(C/A)*100	27.5	21.4	18.9	19.1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신선농식품과 가공농식품 수출추이: 2005~2012▐

(수출액: 억 달러) (신선/가공) 비중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산물을 주 원료로 하는 신선농식품의 수출도 빠르게 증가했으며, 특히 신선농식품의 수출이 없었다면 수출되던 물량만큼 국내공급이 증가하여 해당 농축산물의 국내시장가격을 더욱 떨어뜨렸을 것이라는 점에서 신선농식품 수출이 농가소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 것은 분명함.

- 2005~12년 연평균 8.5%의 신선농식품 수출증가는 결코 적은 것이 아님.
- 특히 수출되던 물량이 국내시장에 공급될 경우 공급 증가로 인해 해당 농축산물의 시장가격이 하락할 것은 분명함.
  - 신선농식품의 수급이 가격 비탄력적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공급 증가보다 더 큰 폭의 가격하락을 예상할 수 있음.
- 따라서 신선농식품 수출은 수출물량 만큼 국내공급 축소를 통해 국내가격을 지지하고, 이를 통해 농가소득의 감소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음.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최근의 신선농식품 수출 추이를 살펴보고, 균형변환모델을 이용하여 신선농식품 수출이 해당 농산물의 농업소득에 어느 정도 기여하는지를 추산함.

- 균형변환모델을 이용하여 수출과 농업소득간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기초하여 해당 농산물의 수출이 농업소득의 증대에 기여하는 정도를 추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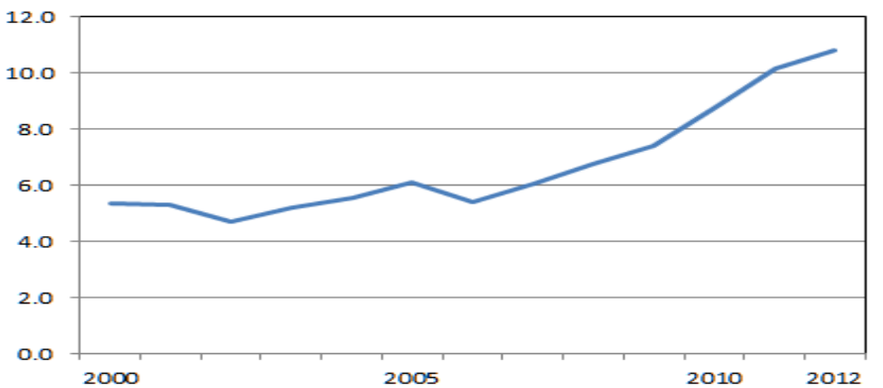
2. 신선농식품 수출 추이

신선농식품 수출은 2000년대 중반까지 연간 5~6억 달러 수준이었으나, 2005년 이후 빠르게 증가해 2012년 10.8억 달러를 기록

- 2005년 6.0억 달러 수출을 돌파한 이후 2012년 10.8억 달러 수출을 기록하여 연평균 8.5%씩 성장해 옴.

▌신선농식품 수출추이: 2000~2012연도별 농식품 수출 동향▐

(단위: 억 달러)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품목군별 수출 추이를 보면 2005~12년 사이 버섯류(농산)와 가금육, 산림부산물의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였으며, 김치와 돼지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군은 대체적으로 평균적인 수출 증가세를 나타냄.

- 버섯류(농산)와 가금육, 산림부산물 수출은 각각 연평균 42%, 23%, 16%로 매우 빠르게 증가해 전체 평균 증가율 8.5%를 크게 웃돌았음.
- 반면 김치 수출은 최대 수출시장인 일본의 소비감소로 인해 증가율이 둔화되었으며, 돼지고기 수출도 대일본 수출 중단으로 급격히 감소
- 채소류, 인삼류, 화훼류, 과실류 수출은 대체로 평균적인 증가세를 보였음.

▌신선농식품 주요 품목(군)별 수출추이: 2005~2012▐

(단위: 백만 달러, %)

	2005	2010	2011	2012	2000~12년 연평균 증감률
신선 농식품	610.9	873.8	1,015.2	1,079.4	8.5
채소류	138.5	178.4	178.2	224.6	7.2
김치	93.0	98.4	104.6	106.6	2.0
인삼류	82.5	124.2	189.3	150.8	9.0
화훼류	52.1	103.1	90.6	84.0	7.0

	2005	2010	2011	2012	2000~12년 연평균 증감률
과실류	120.9	195.4	199.5	222.0	9.1
버섯류	2.8	38.9	38.2	33.5	42.4
돼지고기	34.3	0.8	1.6	2.9	△29.7
가금육	9.5	31.8	40.9	41.2	23.3
산림부산물	77.4	102.9	172.4	213.8	15.6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주요 수출 신선농식품은 김치와 인삼을 비롯하여 채소류에서 파프리카, 딸기, 고추, 토마토 등이 있으며, 과실류에서는 배, 유자, 단감이, 화훼류에서는 백합, 장미, 국화, 버섯류에서는 팽이, 새송이, 축산물로 돼지고기와 닭고기, 오리고기, 산림부산물로 밤과 송이 및 표고버섯 등이 있음.

▌주요 수출 신선농식품▐

(단위: 천 달러)

		2010	2011	2012
농산물	채소류	276,751	282,795	331,232
	김치	96,360	104,577	106,608
	파프리카	58,302	65,866	88,807
	딸기	26,125	20,666	24,270
	고추	15,214	15,876	16,855
	토마토	6,642	9,652	12,904
	과실류	195,422	199,519	221,955
	배	54,117	47,268	49,918
	유자	32,607	40,442	40,815
	감	8,353	9,363	12,778
	화훼류	103,067	90,596	83,960
	백합	27,845	33,088	30,090
	장미	34,235	25,676	27,142
	난초	19,279	13,867	9,916
	국화	13,802	11,192	9,759
	인삼류	124,204	189,305	150,828
	버섯류	38,885	38,231	33,501
	팽이버섯	26,296	22,591	16,863
	새송이버섯	8,352	11,311	12,483
축산물	돼지고기	780	1,560	2,913
	닭고기	26,671	33,432	35,758
	오리고기	4,712	7,217	5,265
임산물	산림부산물	102,896	172,355	213,756
	밤	30,157	28,953	35,902
	송이버섯	5,846	3,018	3,470
	표고버섯	5,225	3,865	2,948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3. 신선 농식품 수출이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1): 이론과 모형

농산물 수출이 되지 않는다면 수출물량 만큼 국내공급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해당 농산물의 국내가격(농가판매가격)이 하락하여 농업조수입에 영향을 줄 것이며, 이를 부분균형이론을 이용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음.

- 농산물 수출이 되지 않는다면 수출되던 물량이 국내시장에 들어오게 되어 그 만큼 국내공급량이 늘어나고 이에 따라 균형점이 이동($E_0 \rightarrow E_1$)
  - 수출물량($Q_1 - Q_0$)이 국내시장에 진입하여 외생적으로 공급이 증가하면 시장균형점은 종전의 E_0에서 E_1으로 변하고, 이에 따라 시장가격도 P_0에서 P_1으로 하락
- 따라서 수출이 있었을 경우와 수출이 없었을 경우 농업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될 수 있음.
  - 수출이 있었을 경우 농업소득(A)은 그 때의 시장가격 P_0에 총공급량에서 수출량을 제외한 Q_0를 곱한 값(P_0Q_0)에 수출수입, $P^E(Q_1 - Q_0)$을 더하고 해당 생산비용, $C(Q_1)$을 빼서 구해짐.

$$P_0Q_0 - C(Q_1) + P^E(Q_1 - Q_0) \quad \cdots\cdots \text{①}$$

(단 P^E 는 수출단가, $C(.)$ 비용함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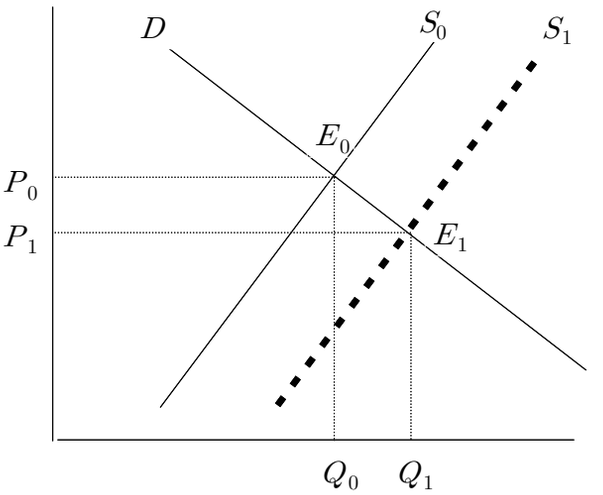
  - 수출이 없었을 경우 농업소득(B)은 그 때의 시장가격 P_1에 총공급량, Q_1을 곱하고 해당 생산비용을 빼서 구함.

$$P_1Q_1 - C(Q_1) \quad \cdots\cdots \text{②}$$

  - 따라서 수출이 있었을 경우와 없었을 경우 농업소득의 차이(A-B)는 위의 식 ①과 ②로부터

$$P_0Q_0 - P_1Q_1 + P^E(Q_1 - Q_0) \quad \cdots\cdots \text{③}$$

▌수출물량이 국내에 공급됨에 따른 시장균형과 시장가격의 변화▐



농업소득의 차이를 계량화하기 위해 특정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함수를 가정하여 실증분석에 적용

- 분석에 이용되는 특정 농산물의 수요와 공급함수
  - 수요함수: $Q^D = Q^D(P|Z)$
  - 공급함수: $Q^S = Q^S(P|Y)$, (단 Z, Y 는 수요와 공급의 외생 변수)
  - 시장균형조건: $Q^D = Q^S$
- 수요와 공급함수 각각을 전미분하여 가격탄성치(η, ϵ)를 이용하여 정리
  - 수요함수: $dQ^D = \frac{\partial Q^D}{\partial P} dP + \frac{\partial Q^D}{\partial Z} dZ$

$$\frac{dQ^D}{Q^D} = \frac{\partial Q^D}{\partial P}\frac{P}{Q^D}\frac{dP}{P} + \frac{\partial Q^D}{\partial Z}\frac{Z}{Q^D}\frac{dZ}{Z}$$

$$\dot{Q}^D = \eta_P \dot{P} + \eta_Z \dot{Z} = \eta_P \dot{P} + \alpha$$

(단 $\dot{X} = dX/X$ 이며, $\alpha = \eta_Z \dot{Z}$ 로 수요에 영향을 주는 외생요인)

  - 마찬가지로 공급함수에서도

$\dot{Q}^D = \epsilon_P \dot{P} + \epsilon_Y \dot{Y} = \epsilon_P \dot{P} + \beta$ (단 $\beta = \eta_Y \dot{Y}$ 로 공급에 영향을 주는 외생요인)

- 수요에 영향을 주는 외생 요인은 없다고 가정하고($\alpha = 0$), 공급에 영향을 주는 요인 가운데 수출물량이 국내시장에 진입함으로써 공급이 증가한 경우($\beta \neq 0$)만을 고려한다면 시장균형공급량 및 균형가격의 변화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음.
  - $\dot{Q} = \eta\dot{P} + \alpha \quad \Rightarrow \quad \dot{Q} - \eta\dot{P} = \alpha$,
    $\dot{Q} = \epsilon\dot{P} + \beta \quad \Rightarrow \quad \dot{Q} - \epsilon\dot{P} = \beta$
  - 이를 행렬로 표현하면 $\begin{pmatrix} 1 & -\eta \\ 1 & -\epsilon \end{pmatrix}\begin{pmatrix} \dot{Q} \\ \dot{P} \end{pmatrix} = \begin{pmatrix} \alpha \\ \beta \end{pmatrix} = \begin{pmatrix} 0 \\ \beta \end{pmatrix}$
  - 따라서 $\dot{Q} = \frac{-\eta\beta}{\epsilon - \eta}$ ---------- ④

    $\dot{P} = \frac{-\beta}{\epsilon - \eta}$ ---------- ⑤

- 식 ④, ⑤를 이용하여 수출이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시장가격을 추산
  - 일반적으로 공급탄력성은 양(+), 수요탄력성은 음(−)의 값을 갖기 때문에 식 ④와 ⑤에서 $(\epsilon - \eta)$는 항상 양(+)의 값을 갖고, 균형물량의 변화, $\dot{Q}$을 수출물량의 변화로 간주한다면 수출량 통계를 이용해 $\dot{Q}$을 계산할 수 있음.
  - 수출물량은 양수이므로 $\dot{Q}$의 값은 양(+)의 값을 가지며, 자체가격에 대한 수요 및 공급탄력성(ϵ 및 η의 값)을 안다면, ④에서 β값을 계산할 수 있고, β와 ⑤를 이용하면 역으로 가격변화율($\dot{P}$)을 구할 수 있음.
  - 따라서 수출이 없었을 경우 예상되는 가격, P_1도 구할 수 있음.

- 나머지 값 P_0, Q_0, Q_1, P^E에 대한 정보는 국내가격자료와 생산 및 수출통계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이 없었을 경우와 있었을 경우의 농업소득 차이인 $P_0Q_0 - P_1Q_1 + P^E(Q_1 - Q_0)$ 의 값도 계산 가능함.

4. 신선 농식품 수출이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2): 실증분석

대상 품목

- 김치와 인삼류를 포함하여 채소에서 파프리카, 딸기, 고추, 토마토를, 과실류에서는 배, 유자, 단감, 사과를, 화훼류에서는 백합과 장비, 국화를, 버섯류는 팽이버섯과 새송이버섯을, 산림부산물에서는 밤과, 송이버섯을 대상으로 함.

수급 탄성치와 수출량의 조정

- 대상품목의 수급 탄성치는 기존 연구결과를 이용하였음(부표 1).
  - 대개는 한국농촌경제원의 내부자료와 농업부문전망모형에 이용된 수급탄력성 추정치 등을 활용하였음. 이와 함께 파프리카와 밤은 기 발표된 논문 및 국림산림과학원의 연구결과를 이용하였음.
  - 아울러 백합, 장미, 국화의 수급탄성치는 절화의 탄성치를 활용하였고 팽이와 새송이버섯은 농산버섯 수급탄성치를 이용하였음.
  - 실제 계산에서는 이렇게 구한 탄성치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음.
- 수출되던 신선농식품이 국내시장에 공급될 때 그 영향력은 물량의 절대적 크기에 달려있는 반면 수출량 통계는 신선농식품이라고 해도 일부 가공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수출량을 공급량으로 전환할 경우 조정이 필요.
  - 채소류는 대개 신선,냉장,건조 상태로 수출되어 수출량 자체를 공급량으로 간주하였음. 다만 토마토는 케찹수출의 원료인 퓨레를 수입산으로 간주하여 이를 제외하였음.
  - 또한 김치는 환산율 70%를 적용하여 배추에 포함시켰음.
  - 인삼은 수삼 기준의 생산량과 수출량 통계를 이용하였음.
  - 과실류도 주스나 조제품 등은 수출물량에서 제외시켰음.
  - 화훼의 경우 백합은 10송이, 장미와 국화는 15송이를 1kg으로 간주하였음.
  - 이에 따라 신선, 내장, 건조 이외 형태의 수출은 적절히 조정하거나 분석대상물량에서 제외시켰음.

▌수출물량이 조정된 품목과 조정률▐

품목		조정률	사유
농산물	딸기	0.96~0.99	신선이 아닌 것 제외
	고추	0.99	
	토마토	0.47~0.58	케찹 수출량 제외
	메론	0.99~1.00	신선이 아닌 것 제외
	배	0.99~1.00	신선이 아닌 것 제외
	유자	0.30	실 유자 중량 환산율 적용
	사과	0.91~0.96	주스 및 기타 제조품 제외
임산물	밤	0.95~0.96	조제품 제외
	송이버섯	0.79~0.94	조제품 제외

신선채소류의 경우 수출로 인하여 연간 약 1,500~1,950억원의 농업소득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신선채소류의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은 수출이 특화된 파프리카를 제외하고 대개는 1~5% 수준으로 계산되었음.
  -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은 토마토가 약 0.5%, 딸기 및 배추(김치 포함)가 1%대, 양배추가 2%대, 고추와 멜론이 3~5%대임.
  - 파프리카는 수출특화작목으로 생산량대비 수출량 비중이 평균 40%에 이름.

▌주요 수출 채소의 생산량 대비 수출비중▐

(단위: 천톤. %)

	생산량 (천톤)			조정된 수출량 (천톤)			수출비중 (%)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파프리카	50.6	43.2	41.4	20.8	16.5	16.2	41.0	38.3	39.1
딸기	192.1	171.5	231.8	2.4	2.4	3.3	1.3	1.4	1.4
고추	104.1	77.1	85.4	3.4	2.9	3.0	3.3	3.8	3.6
토마토	432.8	368.2	324.8	2.4	1.7	1.1	0.6	0.5	0.3
멜론	45.6	36.1	41.8	1.6	1.5	2.0	3.5	4.2	4.9
양배추	302.9	368.5	252.7	8.2	6.4	5.0	2.7	1.7	2.0
배추	1,677.2	2,464.3	1,615.3	25.5	27.8	23.3	1.5	1.1	1.4

주: 배추 생산량은 노지배추만을 고려했으며, 수출량에는 김치수출이 포함됨(김치 중량의 70%를 적용)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수출물량이 국내시장에 공급될 경우 국내가격은 파프리카를 제외하고 대개 1~11%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 가격하락률은 수출비중이 적은 토마토가 1%로 계산되었으며, 배추가 3% 내외, 딸기가 5~6%, 양배추는 4~7%로 계산되었음.
  - 노지고추가 9~11%, 멜론이 8~11%로 비교적 가격하락률이 크게 나왔음.
  - 수출비중이 높은 파프리카의 가격은 계산상 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음 (여기서는 농업소득 기여도 계산을 위해 80% 가격하락을 가정).

▌주요 수출 채소의 수출로 인한 조수입 및 농업소득 지지효과▐

(단위: %, 억원)

	가격 하락률 (%)			조수입 지지효과 (억원)			농업소득 지지효과 (억원)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파프리카	80.0	80.0	80.0	1,591	1,312	1,385	517	446	521
딸기	5.1	5.5	5.7	572	474	585	319	281	311
노지 고추	9.7	11.3	10.6	1,224	1,152	762	931	880	473
토마토	1.0	0.8	0.6	40	22	33	18	10	16
멜론	8.1	9.8	11.3	18	16	33	7	6	16
양배추	7.3	4.6	5.3	27	20	16	18	13	10
노지 배추	3.6	2.7	3.5	202	105	142	140	60	100
계				3,763	3,101	2,957	1,949	1,697	1,447

주: 농업소득은 조수입에서 소득률을 곱해서 구한 근사치임.

- 이에 따라 채소류 수출은 연간 3,000~3,800억원의 채소류 농업조수입을 지지하는 효과가 있으며, 이를 소득으로 환산하면 연간 1,500~1,950억원이 됨.
  - 수출비중이 큰 파프리카는 수출이 연간 450~520억원의 소득지지 효과가 있으며, 딸기도 280~320억의 소득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 노지고추는 470~930억원으로 연도별 차이가 컸으며, 토마토와 멜론, 양배추는 20억원 이하로 나타났고, 배추는 자체 수출 및 김치 수출로 인해 연간 60~ 140억원의 농업소득 지지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인삼류는 수출로 인하여 연간 약 840~1,160억원의 농업소득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 인삼류의 생산량 대비 수출량 비중은 약 12~24%이며, 수출물량이 국내시장에 공급될 경우 국내가격은 14~30% 하락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인삼류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천톤, %)

	생산량 (천톤)			수출량 (천톤)			수출비중 (%)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인삼류	26.1	26.7	26.9	3.2	4.0	6.4	12.3	15.1	23.6

자료: 2012 인삼통계자료집 농림축산식품부.

- 이에 따라 인삼류 수출로 인한 농업조수입 지지효과는 약 1,330~2,03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를 농업소득으로 환산하면 844~1,157억원에 해당함.

▌인삼류 수출로 인한 조수입 및 농업소득 지지효과▐

(단위: %, 억원)

	가격 하락률 (%)			조수입 지지효과 (억원)			농업소득 지지효과 (억원)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인삼류	13.6	17.3	29.9	1,333	1,701	2,034	844	976	1,157

주: 농업소득은 조수입에서 소득률을 곱해서 구한 근사치임.

과실과 버섯(농산), 산림부산물도 수출로 인하여 연간 약 1,040~1,250억원의 소득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음.

- 주요 과실의 생산대비 수출 비중은 유자가 29%대이고, 배는 6~9%, 단감이 3~5%, 사과는 0.5~2% 수준임.
- 농산 버섯류 중 팽이버섯은 생산 대비 수출비중이 20~32%로 매우 높은 반면 새송이버섯은 5~7% 수준이며, 산림부산물 중 송이버섯의 생산 대비 수출비중은 5~9%이고 밤은 16~18%로 높은 수준임.

▌주요 과실, 버섯 및 산림부산물의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천톤. %)

		생산량 (천톤)			조정된 수출량 (천톤)			수출비중 (%)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과실류	배	172.6	290.5	307.8	15.7	18.0	23.0	9.1	6.2	7.5
	유자	13.5	13.5	13.1	3.9	3.9	3.7	29.0	29.1	28.1
	사과	394.5	379.5	460.3	1.7	3.1	8.4	0.4	0.8	1.8
	단감	173.8	171.7	180.8	8.8	6.9	6.5	5.0	4.0	3.6
버섯류	팽이	50.8	43.1	53.2	10.2	13.9	17.2	20.1	32.2	32.3
	새송이	50.6	54.8	44.4	3.4	3.0	2.7	6.7	5.5	6.1
산림부산물	밤	62.3	64.6	68.6	10.9	10.2	12.6	17.4	15.8	18.3
	송이	420	210	729	22	15	67	5.2	7.2	9.2

주: 송이의 생산량 및 수출량의 단위는 톤임.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 수출물량이 국내시장에 공급될 경우 가격하락률은 수출비중이 높은 유자와 팽이버섯의 경우 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과와 단감을 제외하고 대개 10% 이상이었음.
  - 유자와 팽이는 파프리카와 마찬가지로 가격이 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 위하여 80% 가격하락률 가정하였음.
  - 새송이버섯과 밤의 가격하락률이 상당히 커 각각 30%를 초과하는 것으로 계산되었음. 배의 가격하락률도 비교적 높아 12~18%로 나타났음.
  - 반면 수출비중이 적은 사과는 가격하락률이 1~4%로 계산되었으며, 단감의 경우는 4~11%로 나타났음.
  - 산림부산물인 송이버섯도 12~23%의 비교적 큰 가격하락률을 보였음.
- 이에 따라 수출로 인한 조수입 지지효과는 2,500~2,700억원, 농업소득의 지지효과는 1,044~1,253억원으로 추산되었음.
  - 배는 370~470억원의 농업소득 지지효과를, 사과는 50~195억원으로 연도별로 기복이 있었으며, 농산 버섯류는 40~85억원 수준
  - 밤은 17~33억원 수준

▌주요 과실, 버섯 및 산림부산물 수출로 인한 조수입 및 농업소득 지지효과▐

(단위: %, 억원)

		가격 하락률 (%)			조수입 지지효과 (억원)			농업소득 지지효과 (억원)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과실류	배	17.8	11.8	14.4	293	264	315	174	153	186
	유자	80.0	80.0	80.0	273	389	287	179	257	169
	사과	0.9	1.8	4.1	91	116	291	62	70	180
	단감	11.1	3.7	7.8	347	267	232	227	171	156
	소계				1,005	1,036	1,126	642	652	692
버섯류	팽이	80.0	80.0	80.0	569	483	787	112	84	172
	새송이	36.8	30.1	33.5	549	517	524	108	90	114
	소계				1,118	1,000	1,312	219	174	286
산 림 부산물	밤	30.1	26.9	32.1	530	382	430	353	212	258
	송이	12.2	17.2	22.6	62	45	14	8	7	16
	소계				592	427	574	361	218	275
총계					2,715	2,464	3,011	1,222	1,044	1,253

주 1) 유자 및 팽이버섯의 경우 가격하락률을 80%로 가정하였음.
2) 농업소득은 조수입에서 소득률을 곱해서 구한 근사치임.

화훼류도 수출로 인하여 연간 약 230~380억원의 판매소득 증대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량 대비 수출량의 비중은 백합이 가장 높아 53~67%이며, 장미가 15 ~21%, 국화가 7~10% 수준으로 나타났음.[2)]

▌주요 수출 화훼류의 생산량 및 수출량▐

(단위: 백만본. %)

		생산량 (백만 본)			수출량 (백만 본)			수출 비중 (%)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화훼류	백합	40.7	58.4	46.5	27.2	30.7	27.2	67.0	52.5	58.6
	장미	197.6	228.8	277.8	32.1	35.1	57.2	16.3	15.3	20.6
	국화	269.8	292.1	301.0	21.0	21.7	31.4	7.8	7.4	10.4

주: 본과 톤의 환산은 백합의 경우 10본, 장미와 국화는 15본을 1kg으로 간주
자료: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www.kati.net), 2012 화훼재배현황.

2) 백합의 경우 10본을 1kg로, 국화와 장미는 15본을 1kg로 환산하였음.

- 수출물량이 국내시장에 공급될 경우 가격하락률은 수출비중이 높은 백합은 파프리카 등 다른 수출비중이 높은 품목과 같이 가격이 0원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3] 장미와 국화는 각각 45~64%, 20~29%로 계산되었음.
- 이에 따라 수출로 인한 조수입 지지효과는 760~1,055억원, 농업소득 지지효과는 240~371억원으로 추산되었음.
  - 백합은 80~105억원의 농업소득 지지효과를, 장미는 99~215억원, 국화는 54~78억원 수준.

▌화훼류 수출로 인한 조수입 및 농업소득 지지효과▐

(단위: %, 억원)

		가격 하락률 (%)			조수입 지지효과 (억원)			농업소득 지지효과 (억원)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화훼류	백합	80.0	80.0	80.0	251	285	224	83	105	79
	장미	47.9	44.7	64.0	370	394	610	99	136	215
	국화	20.8	19.8	28.7	136	140	221	54	55	78
	계				757	820	1,055	236	295	371

주 1) 백합의 경우 가격하락률을 80%를 가정
2) 판매소득은 판매액에다 소득률을 곱해서 계산(단 백합의 경우는 장미와 국화의 소득률 평균치를 사용)

이와 같은 계산을 종합해 보면 주요 수출 신선농식품의 수출로 인해 농업소득을 지지하는 효과는 연간 약 2,880~4,250억원으로 추산할 수 있으며, 이는 전체 농업소득의 약 2.4~4.0%에 해당하는 것이며, 곡물 및 축산소득을 제외한 농업소득 6조 5,297억원의 4.2~6.5%에 해당.

- 2012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농가의 농업소득 총액은 약 10조 5,857억원으로 신선농식품 수출로 인한 농업소득 지지효과 2,879~4,251억원은 이의 2.4~4.0%에 해당함.
  - 2012년 호당 농업소득은 919만 7천원이고 전체 농가호수인 115만 1천호를 고려하면 2012년 우리나라 총 농업소득은 약 10조 5,875억원이 됨.

3) 이에 따라 백합의 가격하락률은 80%로 가정하였음.

● 그러나 농업소득에는 쌀을 비롯한 곡물 소득과 축산소득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그 비중도 적지 않은 반면 지금까지 살펴본 신선 농식품수출은 곡물과 축산이 배제되어 있어 농식품 수출의 농업소득에 대한 기여도 계산시 농업소득에서 곡물소득과 축산소득을 차감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영농형태별 농업소득률을 계산하면 과수의 경우 39~48%, 채소는 41~43%, 특용작물은 30~51%, 화훼는 9~23%, 일반 밭작물은 38~49%를 나타남.

▌영농형태별 농업소득률▐

(단위: 천원, %,)

	농업소득 (천원)			농업총수입 (천원)			농업소득률 (%)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과수	16,215	14,940	19,984	37,743	38,893	41,899	43.4	38.9	47.7
채소	14,896	14,418	14,231	35,619	33,490	34,460	41.8	43.1	41.3
특용작물	7,108	8,579	26,910	21,786	28,611	53,048	32.6	30.0	50.7
화훼	10,095	6,384	12,857	62,852	71,070	55,758	16.1	9.0	23.1
일반 밭작물	6,729	8,656	9,931	17,890	19,871	20423	37.6	43.6	48.6

자료: 통계청

- 채소와 과수, 특작 및 기타 작물의 농업총수입을 합하면 호당 1,328~1,382만원이 되고 앞서 구한 농업소득률을 적용해 채소와 과수, 화훼, 특작 및 기타 농업에 대한 농업소득을 추산하면 호당 533~582만원이 됨.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및 기타농작물에 대한 호당 농업소득▐

(단위: 천원)

		호당 농업 총수입 (천원)			호당 농업소득 (천원)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채소	- 채소	8,427	7,,675	7,251	3,524	3,304	2,994
과수	- 과수	3,683	3,762	4,147	1,978	1,464	1,978
화훼	- 화훼	264	409	415	96	37	96
특작	- 특작 및 기타	1,445	1,429	1,525	758	525	758
기타	소계	13,819	13,275	13,338	5,826	5,330	5,826

자료: 통계청

– 따라서 전체 농가호수를 고려해 채소와 과수, 특작 및 기타 작물에 대한 농업총 소득을 계산하면 6조 2,899억~6조 8568억으로 추산할 수 있음.

▌채소, 과수, 화훼, 특작 및 기타농작물에 대한 총 농업소득▐

호당 소득 (천 원)			농가수 (천 호)			총 농업소득 (억원)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2012	2011	2010
5,826	5,330	5,826	1,151	1,165	1,177	65,297	62,099	68,568

주: 통계청

- 이에 따라 신선농식품 수출의 농업소득(곡물 및 축산소득을 제외) 기여도는 약 4.2~6.5%로 추산해 볼 수 있음.
- 특히 최근으로 들어올수록 신선농식품 수출이 농업소득에 기여하는 정도가 커지고 있음. 이는 최근 들어 농업소득이 정체된 가운데 신선 농식품수출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보이며, 향후 농산물시장의 전반적인 개방확대에 따라 신선농식품 수출이 농업소득에 주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주요 신선농식품 수출에 따른 농업소득 지지효과▐

(단위: 억원, %)

		2012	2011	2010
채소류	파프리카	517	446	521
	딸기	319	281	311
	노지 고추	931	880	473
	토마토	18	10	16
	멜론	7	6	16
	양배추	18	13	10
	배추	140	60	100
	소계	1,949	1,697	1,447
인삼류		844	976	1,157
화훼류	백합	83	105	79
	장미	99	136	215
	국화	54	55	78
	소계	236	295	371

		2012	2011	2010
과실류	배	174	153	186
	유자	179	257	169
	사과	62	70	180
	단감	227	171	156
	소계	642	652	692
버섯류	팽이	112	84	172
	새송이	108	90	114
	소계	219	174	286
산 림 부산물	밤	353	212	258
	송이	8	7	16
	소계	361	218	275
총계 (A)		4,251	2,892	2,879
총 농업소득 (B)		105,857	101,972	118,853
채소. 과일, 화훼, 특작 및 기타의 총농업소득 (C)		65,297	62,099	68,568
(A/B) (%)		4.0	2.8	2.4
(A/C) (%)		6.5	4.7	4.2

5. 결론 및 시사점

2000년대 중반 이후 신선농산물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는 비록 크지 않지만 수출물량만큼 국내시장격리를 통한 가격지지로 농가소득을 유지해 주는 긍정적 역할을 해왔음.

- 특히 생산 대비 수출 비중이 큰 수출특화 농산물은 수출이 해당 품목의 농업소득을 결정하는데 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생산량의 40~60%를 수출하는 파프리카와 백합, 30%를 수출하는 유자와 팽이버섯 등은 수출량만큼 국내시장 공급을 줄여 해당 품목의 가격을 유지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 주요 수출 신선농식품을 대상으로 하여 수출로 인한 농업소득 지지효과를 추산한 결과 약 2,880~4,250억원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2012년 기준 총농업소득의 2.4~4.0%, 채소·과일·화훼·특작 및 기타 작물 농업소득의 4.2~6.5%에 해당함.
  - 특히 신선농식품 수출의 농업소득 기여도가 점점 커지고 있어 향후 농식품수출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됨.

한편 이러한 신선 농식품수출의 농업소득 지지효과는 이용된 탄성치나 기준가격 등 가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신선농식품 수출물량 전부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다면 향후 더 커질 가능성이 높음.

- 여기서 고려한 채소류 중 파프리카와 딸기, 토마토, 고추, 멜론, 배추, 김치, 양배추 등은 실제 우리나라 채소류 수출의 80%를 담당하고 있으며, 20%에 달하는 기타 신선채소의 수출을 고려하지 못했음.
- 마찬가지로 화훼도 여기서 고려한 백합, 장미, 국화는 전체 화훼수출의 80% 수준이며, 사과, 배, 단감, 유자는 전체 과일수출의 50~60%, 밤과 송이도 전체 수출 임산물의 20~30%에 불과한 수준임.
- 따라서 본 분석에서 빠진 수출물량을 모두 고려한다면 여기서 제시한 신선농식품의 농업소득 기여도는 보다 커질 것임.

한편 향후 신선농식품 수출의 농엄소득 기여도가 커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식품수출과 국내 농업생산활동과 연계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수출 신선농식품은 생산에서부터 수출 및 현지 마케팅까지 일관유통체계를 수립하는 동시에 IT, BT등이 접목된 융복합 농식품의 개발 및 수출이 필요함.

- 수출농산물 일관유통체계 확립을 통하여 국산 신선농식품의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기초로 신선농식품의 수출단가와 수출수익률 제고를 기할 수 있음.
- 수출 수익률 제고는 수출 농식품 생산의 전문화를 유도해 현재와 같이 국내 가격상황에 따른 수출공급물량의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해소하는데도 도움
- 또한 기존과 같은 단순 식용품목위주의 농식품 수출에서 IT/BT 등의 기술이 접목된 융복합 농식품 개발을 통해 비가격경쟁력을 높여야 함.

〈부록〉 신선농식품의 농업소득 기여도 계산에 이용된 주요 품목의 수급탄성치

▌주요 수출 신선농식품의 수급 탄성치▐

		수요			공급		
		1	2	3	1	2	3
채소류	파프리카	−0.69	−0.47	−	0.59	0.29	−
	딸기	−0.31	−0.22	−0.23	0.76	0.14	0.41
	노지고추	−0.74	−0.22	−0.08	0.51	0.44	0.37
	토마토	−0.48	−0.37	−0.92	0.29	0.24	0.32
	멜론	−0.54	−0.36	−	0.72	0.48	−
	양배추	−0.33	−0.22	−0.60	0.52	0.20	0.60
	노지배추	−0.44	−0.41	−0.42	0.29	0.29	0.26
인삼류	인삼류	−0.77	−1.29	−	0.51	0.14	−
과실류	배	−0.58	−0.54	−0.56	0.29	0.35	−
	유자	−0.46	−0.47	−0.56	0.39	0.34	−
	단감	−0.40	−0.35	−0.69	0.55	0.35	−
	사과	−0.40	−0.52	−0.45	0.32	0.33	−
화훼류	백합	−0.59	−0.22	−	0.49	0.26	−
	장미						
	국화						
버섯류	팽이버섯	−0.25	−0.14	−	0.17	0.14	−
	새송이버섯						
산림부산물	밤	−1.06	−0.34	−	0.24	0.56	−
	송이버섯	−0.45		−	0.85		−

주 1) 출처 1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내부자료(2013년 기준)
출처 2는 조영수 외(2008) 「농업부문전망모형 KREI-ASMO 2008 운용개발 연구」 KREI임.
출처 3은 김경덕 외(2002) 「과일·과채·채소·축산 수급 및 반응함수 추정」 KREI임.

2) 단 파프리카의 경우 수요에서 출처 1은 정은미 외 (2008) 「파프리카 산업의 현황과 과제」 KREI이며, 출처2는 안병일 외(2012) "파프리카 수출확대의 시장균형 및 사회후생효과 분석" 「식품유통연구」 29권 3호임. 공급탄력성은 딸기, 토마토, 멜론의 평균값임.

3) 밤의 출처2는 박용배 외(2007) 「밤 생산조절 직접지불제 도입방안에 관한 연구」, 국립산림과학원임.

4) 노지배추는 가을배추를 의미

5) 화훼의 경우 출처 1은 절화를 의미하며, 출처2는 화훼전체를 의미

6) 유자는 다른 과일 탄성치의 평균값임.

7) 버섯류는 농산버섯에 대한 탄성치이며, 송이버섯은 임산버섯에 대한 탄성치임.

8) 산림부산물을 제외하고 공급탄성치는 재배면적반응에 대한 탄성치임.

Ⅱ. 대내외 수출환경 동향

– 국제 금융시장

1. 국제 외환시장
2. 국제 상품시장

– 주요국의 최근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

⑦ 인도네시아

국제 금융시장

* 작성자 : 양다영

1. 국제 외환시장

◆ 미국 FRB가 2월부터 양적완화 규모의 축소를 추가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주요통화대비 약세

- 1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2월부터 FRB의 자산매입 규모를 750억 달러에서 650억 달러로 100억 달러 축소할 것이라고 결정
  - 그러나 유럽중앙은행(ECB) 기준금리 동결,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미국 달러화는 유로화 약세로 나타남.
  - 일본 엔화의 경우 최근 미국 양적완화 규모 축소와 관련하여 신흥국 금융시장의 불안정성이 확대되면서 안전자산 선호현상 강화로 강세를 보였으나 최근 경제지표 둔화가 강세 폭 제한
  - 다만 최근 1월 FOMC 의사록이 공개되면서, 일부 위원들이 기준금리를 조기에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음이 알려짐에 따라 달러가 강세로 나타남.

◆ 원/달러 환율은 미국 1월 FOMC 의사록 공개에 따른 기준금리 조기인상 우려와 중국 2월 제조업 PMI 지수 하락으로 인한 경기둔화 전망으로 상승

▌주요 환율 동향▐

구분	2014.2.20 (현재)	2014.1.20 (1개월전)	2013.2.20 (1년전)	전월대비 상승률(%)	전년대비 상승률(%)
달러 인덱스[1]	80.29	81.23	81.07	-1.16%	-0.97%
달러/유로	1.3719	1.3552	1.3281	1.23%	3.30%
엔/달러	102.3	104.2	93.6	-1.84%	9.31%
원/달러	1072.2	1063.7	1078.5	0.80%	-0.58%

주: 1. 유로, 일본 엔화, 영국 파운드, 캐나다 달러, 스웨덴 크로네, 스위스 프랑 등 6개 통화에 대한 미국 달러의 가치를 나타낸 것(1973년 3월=100)

자료: Bloomberg.

2. 국제 상품시장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 달러화가 약세로 지속한 가운데 미국 쿠싱지역 원유 재고 감소, 세계 석유수요 증가 전망 등으로 상승

- 미국 쿠싱지역의 원유 재고가 키스톤(Keystone) KL 송유관의 남부 구간 가동 개시로 감소하면서 WTI유 가격 상승을 견인
  - 미 에너지 정보청(EIA)은 WTI 선물의 실물 인도지점인 오클라호마주 쿠싱 지역의 원유 재고가 2013년 7월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고 발표
  - 이는 전월 쿠싱 지역과 미 걸프만 연안을 잇는 키스톤(Keystone) XL 송유관의 남부 구간이 가동을 개시하면서 원유 수송이 증가했기 때문
- 석유수출국기구(OPEC), 국제에너지기구(IEA) 등이 2014년 세계 석유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전망한 점도 유가 상승에 영향을 주었음.
  - OPEC은 지난 12일 유로 지역의 경기부진 완화와 미국의 석유수요 증가로 2014년 세계 석유수요를 전년대비 109만 배럴 증가한 일일 9,098만 배럴로 예상하며 전월의 전망치를 상향 조정
  - IEA도 경제회복으로 미국 등 선진국의 석유수요가 증가하면서 2014년 세계 전체의 석유수요가 일일 9260만 배럴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하였음.
- 그 외에도 미국 한파의 영향으로 난방유 수요가 증가한 점, 리비아와 남수단에서 반군의 유전시설 공격 등 정정 불안으로 생산차질이 발생한 점 등도 원유 가격을 상승시켰음.

▌국제유가 동향▐

(단위: $/bl, %)

구분	2014.2.20	2014.1.20	전월대비 증감률(%)
WTI유	103.0	94.3	9.3%
Dubai유	106.5	103.3	3.1%
Brent유	109.8	107.6	2.1%

자료: Bloomberg.

국제곡물가격은 기상 악화에 따른 생산량 감소 우려 등으로 상승

- 소맥가격은 미국 생산량 감소 우려로 상승
  - 미국의 한파 지속으로 인해 최대 생산지인 캔자스 지역 등의 작황 등급이 악화되면서 생산량 감소에 대한 우려가 확산
  - 미 농무부(USDA)의 수급보고서에 따르면 2013/14년도 소맥 생산량 전망치는 8억 8,773만 톤으로 전월의 전망치(8억 8,879만 톤)보다 하향 조정되었음.
- 옥수수 가격은 수출 호조, 남미지역 생산량 감소 우려 등으로 상승
  - 중국이 미국산 옥수수 22만 톤의 구입을 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수출 호조가 지속되면서 상승세 시현
  - 또한 미국 한파로 인한 물류 운송 차질과 남미 지역의 건조한 기후로 인한 생산량 감소 우려도 가격 상승에 기여하였으나, 2009년 이후 최대 수준을 보이고 있는 옥수수 재고량이 가격 상승세를 일부 제한
- 대두 가격도 남미지역 건조 기후 지속으로 작황 우려가 지속되며 상승
  - 브라질 등 남미지역의 가뭄으로 작황에 피해가 예상되는 가운데 AgRural 등 관련 주요 전망기관들이 생산량 전망치를 하향 조정하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주었음.

▌세계 주요 곡물 가격 동향▐

(단위: ¢/bu, %)

구분	2014.2.20	2014.1.20	전월대비 증감률(%)
소맥	616.2	563.4	9.4%
옥수수	455.6	424.0	7.5%
대두	1358.3	1316.5	3.2%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주요국의 최근 검역 및 수입제도 변경 사항 – ⑦ 인도네시아

최근 검역제도 변경 사항

유기농업시스템(Organic farming systems)에 대한 규정 WTO에 통보(2013. 9. 10)[4)]

- 인도네시아는 유기농업시스템 시행에 대한 법적인 기준을 나타내는 규정을 2013년 9월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음.
  - 동 규정의 목적은 인도네시아의 유기농산업을 관리하고, 유기농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유기농제품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며, 신뢰하고 추적가능한 유기농 생산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임.
- 유기농업시스템 규정에는 유기농산물 재배(원산지), 생산방법(비료 및 농약), 증명서, 라벨링, 수입유기농제품, 교육 및 통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유기농업시스템을 시행해 온 각 사업단위는 국가신임위원회(KAN)에 의해 승인된 유기농증명기구(Organic Certification Bodies)에 증명서를 제출해야 함.
  - 인도네시아에서 승인된 모든 유기농제품(국내 또는 수입제품)들은 인도네시아 유기농 로고를 부착해야 함. 재포장된(re-packaged) 유기농제품은 재증명(recertification) 이전에는 인도네시아 유기농 로고를 부착하지 않아도 됨.
  - 인도네시아로 수입된 유기농제품은 △원산국에서 사업단위를 증명하는 유기농증명기구에서 발행한 증명서, △원산국의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건강증명서(Health Certification)나 Certificate of Free Sale 등을 수반해야 함.

4) G/SPS/N/IDN/65

백색 크리스탈 설탕(White crystal sugar)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규정 초안 통보(2013. 2. 21)[5)]

- 인도네시아는 백색 크리스탈 설탕에 대한 인도네시아 국가표준을 강화하기 규정 초안을 2013년 2월 WTO SPS 위원회에 통보하였음.
  - 동 규정 초안은 △안전과 품질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백색 크리스탈 설탕의 유통으로부터 인간을 보호하고, △백색 크리스탈 설탕의 생산 및 유통 관리 비즈니스를 위한 법적 확실성을 제공하며, △백색 크리스탈 설탕의 유통 왜곡에 대한 추적성(traceability)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 제정되었음.
- 동 규정 초안에 따르면 백색 크리스탈 설탕은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이나 수입된 제품 모두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초안에 따른 백색 크리스탈 설탕은 HS 1701.91.00.00과 HS 1701.99.90.00품목임.
  - 백색 크리스탈 설탕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기업들은 제품증명기구(Certification Body for Products)에 의해 발행된 User Product Certificate-SNI(SPPT-SNI)를 가져야 함.
  - 수입된 백색 크리스탈 설탕은 국가승인기구에서 승인된 연구소에서 발행한 분석증명서(CoA)가 첨부된 SPPT-SNI를 수반해야 함.

분말우유, 라면 등 6개 품목, 인도네시아 국가표준 취득 의무화 예정(2013. 11. 28)[6)]

- 인도네시아는 분말우유, 가당연유, 증류수, 라면, 과자, 식용팜유 등 6개 품목에 대해 인도네시아 국가표준(SNI) 취득을 2014년 중에 의무화할 방침임.
  - 위 6개 품목은 SNI 기준이 이미 책정됐지만 의무는 아니었음.
  - 이는 아세안경제공동체(AEC) 발족으로 시장개방에 따른 과도한 수입확대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임.
  - 현재 밀가루, 설탕, 코코아파우더, 패트병음료수, 미네랄워터의 SNI 취득을 의무화하고 있음.

5) G/SPS/N/IDN/61
6)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최근 수입제도 변경 사항

주세 개정(2014. 1. 20)[7]

-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2014년 1월 1일부터 주세를 일부 개정하였음.
  - 에틸알코올을 포함한 음료를 대상으로 평균 12% 인상하였으며, 이번 개정은 2010년 3월 이래로 약 3년만임.
  - 에탄올, 에틸알코올농축액 등은 현행 적용세율을 유지하였음.

▌주세 개정▐

종류	도수	개정 이전		개정 이후	
		리터당 관세		리터당 관세	
		국내산	수입산	국내산	수입산
A	~ 5%	11,000RP	11,000RP	13,000RP	13,000RP
B	5~20%	40,000RP	40,000RP	33,000RP	44,000RP
C	20% ~	75,000RP	130,000RP	80,000RP	139,000RP

주) 환율: 11,000RP = 880원

한국 고추장 수입규제(2013. 11. 19)[8]

- 인도네시아 식약청은 새로운 수입가공식품 등록번호를 부여받을 때, 미생물이 함유된 제품은 수입허가를 받기 어렵다고 밝힘.
  - 한국의 고추장은 발효식품이므로 그 안에 미생물이 들어 있을 수밖에 없음.
  - 그러나 인도네시아는 발효식품인 고추장에 대해 미발효식품인 삼발[9]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음.
  - 인도네시아 식품안전평가이사회는 식품안전을 평가할 때 미생물 오염이 되었거나, 중금속 오염이 된 제품은 수입이 규제된다고 밝힘.

7)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8)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9) 삼발(Sambal)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스리랑카 지역에서 즐겨 먹는 향신료로 만든 소스임. 고추장과 비슷하게 주로 다양한 고추와 후추 종류를 맷돌로 빻아 섞고 다진 양파, 민트, 마늘 그리고 새우로 만든 젓갈, 식초, 소금을 넣고 만들어 매운맛이 남(위키백과).

수입농산물 쿼터품목(2013. 10. 25)[10)]

- 인도네시아는 사과, 포도, 귤, 참외, 장류(된장, 춘장, 고추장), 김, 미역 등을 쿼터품목으로 설정함.
  - 쿼터신청은 1년에 반기별로 신청하는 등 신청 및 승인요건이 까다로움.
  - 원예작물에 대한 쿼터신청 서류로 원예품목 수입등록서, 수입추천서, 수입승인서, 무역판매업허가증, 세무번호, 수입허가서, 창고허가증, 차량운행증·등록증, 유통계약서 등이 요구됨.

▌2013년도 인도네시아 주요 쿼터품목▐

HS CODE	품목 명
0701	감자(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으로 한정한다)
0703	양파·쪽파·마늘·리크(leek)와 그 밖의 파속의 채소(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706	당근·순무·샐러드용 사탕무뿌리·선모(仙茅)·셀러리액(celeriac)·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식용 뿌리(신선한 것이나 냉장한 것)
0709.60	고추류(캐프시컴속 또는 피멘타속의 열매)
0710	냉동채소(조리하지 않은 것이나 물에 삶거나 쪄서 조리한 것)
0803	바나나[플랜틴(plantain)을 포함하며, 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	대추야자·무화과·파인애플·아보카도(avocado)·구아바(guava)·망고(mango)·망고스틴 (mangosteen)(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4.30.0000	파인애플
0805	감귤류의 과실(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6	포도(신선하거나 건조한 것)
0808	사과·배·마르멜로(quince)(신선한 것)
2001.90.1000	과실과 견과류
2007	잼·과실젤리·마멀레이드(marmalade)·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puree)·과실이나 견과류 의 페이스트(paste)(조리해서 얻은 것)
2009	과실 주스(포도즙 포함)와 채소 주스(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
2103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
2103.90.1000	장류(된장, 춘장, 고추장)

10)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신선농산물 수입통관 항구 축소(2013. 10. 22)[11]

- 인도네시아 무역부는 신선농산물(과일 및 채소류) 수입시 항구를 8곳에서 4곳으로 축소한다는 규정을 2012년 6월 19일부로 시행함.
  - 새로 개정된 항구는 ① Belawan항(메단시), ② Tanjung Perak항(수라바야시), ③ Makassar항(마카사르시), ④ Soekarno Hatta공항(자카르타) 등임.
  - 자카르타에 위치한 Tanjung Priok항구는 WTO CRA(Country Recognition Agreement) 협정에 합의한 미국, 캐나다, 호주의 경우만 원예작물 수입이 가능하며, 기타 국가는 불가능함.

원예농산물 수입규제 시행(2013. 6. 19)[12]

- 인도네시아는 원예농산물(horticulture products) 수입에 대한 규제를 2012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음.
  - 원예농산물은 신선농산물 및 채소류와 이의 가공품, 관상용 식물, 버섯 등을 포함함.
- 수입 물량은 매년 국내 생산과 소비를 감안하여 원예농산물의 수입 물량 한도를 정하기로 함.
  - 원예농산물 수입시 수입업체는 농업부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후, 무역부에 허가를 요청할 수 있음.
  - 수입제품 정보 표시를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입업체는 수입품에 라벨과 패킹을 해야 하며, 라벨은 인도네시아어로 하되, 제품 브랜드, 이름, 용량, 생산자명, 수출업체명 및 수입업체명 등이 명시되어야 함. 또한 모든 수입품은 원산지 증명, 선적 항구 표시, 선적 날짜, 종류와 용량, 검역증명 등을 제시해야 함.
  -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목은 위험분석(risk analysis)을 해야 하며, 위험분석을 거쳐야 추천서가 발행됨. 신선농산물은 농업부 산하 검역청에서, 가공품은 식약청에서 발행함.

11)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12)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

aT Focus 제38호

신선농식품 수출이 농업소득에 미치는 영향

• **보고서 기획 및 작성**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국제금융팀, 다자통상팀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식품수출정보팀

발 행 일 : 2014. 2. 28
발 행 처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137-787,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7 aT센터
02) 6300-1114 http://www.aT.or.kr
자료문의 : aT 농수산식품기업지원센터 식품수출정보팀
02) 6300-1393~4

○ 「aT포커스」는 농식품수출과 관련한 이슈를 외부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분석·정리한 자료입니다.
○ 본 자료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수산식품수출지원정보사이트 wwww.kati.net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자료집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공식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본 자료집의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인용하실 수 있으나 무단전재, 복사는 법에 저촉됩니다.